

한미 국제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의사전달 갈등의 이론적 고찰

박 종 삼*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논문의 목적
3. 논문의 한계성
4. 논문의 중요성
5. 연구 방법

II. 문헌연구

1. 선행연구의 개평
2. 문화와 성격과 행동
3. Jung의 성격이론과 문화적 배경
4. 한국인의 성격 형성과 문화적 가치관

5.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과 의사 전달 갈등

III. 임상상담에 나타난 한미 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

1.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2. 가족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3. 재정관리와 문화적 갈등
4. 언어소통의 장애와 문화적 갈등
5. 상호갈등 해소와 문화적 양상

IV. 한미 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위한 가설 설정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국제결혼과 이혼 ;

20세기 중반기에 형성된 국제권력의 균형관계 유지를 위한 초강대국 군사의 외국주둔은 필연적으로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들을 사회문제 내지 국제문제로 야기시켰다.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등 많은 강대국의 군대(남성)들이 주둔했었거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약소국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생겨난 가정과 혼혈 아동들의 사향적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에는 63만여명의 한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¹⁾ 이는 1962년 우리정부의 “해외이주법”, 1965년 미국의 “케네디이민법”, 1972년의 KAL의 한미간 정기여객선 취항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해 1960년 후반기에 이르러 미국이민이 가속화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속한 이민증가의 요인분석에서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곧 한국동란 이래 미군 주둔 기지촌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국제결혼인 것이다.

* 文理科大學 社會事業學科 副教授

1) 동아일보, 한미백년 7, 외무부 해외공보관 보고, 1981. 6. 30 현재

* 참조 ; 이와같은 한미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다. 즉 1962년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미군은 159명에 불과했으나 19*

실례로 1973년에 한미결혼은 3,000쌍 이상으로 추산되었으며²⁾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군중실에서도 매년 같은 수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누적된 많은 수의 한미결혼가족의 친척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없더라도 한국이민이 미군과 한국여인의 결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곧 국제결혼은 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다는 사실은 사회의 일반적인 긍정적 통념과는 반대로 많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연구분석 되었다.³⁾ 이민이란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문화변동의 경험을 생활전체에서 경험해야 하는 충격적 경험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한다는 사실은 이국땅에서 완전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불친절하고 이해심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본토인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부정적 체험인 것이다.

더우기 미국군인의 부인으로 이민을 간다는 사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시키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부인들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사례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⁴⁾

한미국제결혼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대부분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서, 의지할 데 없는 한국부인과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미국제결혼의 이혼율에 대하여 낮게는 80%에서 높게는 90%까지 추산하는 경향이 미군 계통의 군목, 법관, 사회사업가, 인사처 요원 등에 의하여 논의되고, 대사관 직원들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신빙성 있는 수치는 없고, 앞으로도 정확한 이혼율을 파악하는 과정은 군인가족이라는 여건상 제약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줄 안다. 다만 1974년 Seattle 근교에 위치한 Fort Lewis에서 이민족간의 결혼한 가족의 이혼율은 80%에 달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⁵⁾

이와같은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는 원인은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미국군인들만 고찰해도 생리학적으로 그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74년에 미군이 결혼신청을 낸 수는 4,000명을 초과하였다.

(Data from the Chaplains Branch and Social Work Service, Seoul, Korea, Cited in Intercultural Marriage; the Korean-American Experience by B.W.Ratiff et. al., Social Casework, Vol. 59, No. 4, p. 221)

2) 송 성자,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p. 1.

3) Jong Sam Park,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 in Los Angeles, doctoral dissertation, USC, 1975.

* 참조; C.F. Ware, Immigrati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1967, pp. 587-595를 참조할 것.

4) Harald G. Gateley (Minister to Korean-American Families Office of the Post Chaplain), Staff Study of Korean-American Families, Fort Sill, Oklahoma, 1977.

* 참조; 본 연구자는 상기한 한미결혼 상담자들을 위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강연을 담당해 왔고 이혼율에 대한 토론을 지난 4년간 행하여 왔음.

5) David Moon (Reserve Chaplain), Study of Problems of Korean Wives, 1976. p. 2.

20대 전후반의 청소년들이며, 심리적으로도 가족과 고향 내지 본국을 떠나 규칙적인 군인생활을 하여야 함으로 이성과의 동반(Companionship)을 필요로 한다. 사회학적으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및 미국 전체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한 미군기지와 기지촌이라는 사회 행동에 관한 명목(Norm)이 희박한 지역에서 인간의 본능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미국군인들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임시로 이탈되어 충분한 재정(봉급)적 뒷받침을 받으며, 그들의 어떠한 행동에도 의미있는 도전을 가하지 않는 기지촌에서 원색적인 남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군인들은 근무시간 이외의 매일매일의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술과 성(性)은 미국군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Social Indicator 로써 간주되고 있다. 한국에 새로 온 군대들은 동료들로부터 Green Bean Tour 내지 Green Bean Party 라는 신병 전입식을 기지촌에서 술과 여자와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회적 게임(Social Game)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받게 된다. 미국의 헌법과 미국 당국의 규칙은 군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미군들과 관련된 기지촌의 한국여성들도 많은 사회심리적(Psycho-Social)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소득층에서 낮은 교육을 받았고 가족과의 문제를 지닌 여성들이 가출한 배경을 갖고 있다. 결혼을 할 적령기의 여성이지만 역시 기지촌의 특유한 문화에 압력을 받고 금전과 성과 술과 관련된 매춘생활을 하며 미군들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되는 한미결혼은 충동적 행동, 현재의 만족추구, 욕구충족을 위한 상대방의 도구적 사용, 문화의 차이, 언어소통의 제한점 등 결혼 초기부터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한미결혼이 시작된다. 물론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성취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술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혼으로 끝나게 된다.

한국 여성의 입장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그들의 남편이 될 미군들이 자라온 미국 사회의 이혼율이다. 지원병제도하에 입대하는 미국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한국주둔 미군들이 미국사회의 문제점에서 제외될 특수한 사회계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혼율은 1875년—1975년 1세기 사이에 16배로 증가하였다.⁶⁾ 미국 사회의 이혼율은 1970년대 U.N.에 보고된 국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⁷⁾ 1950년대 중반기로부터 시작하여 이혼율은 66%로 증가하였고, 재혼율도 33%가 증가하였으나 초혼율은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⁸⁾

6)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24, No. 12 (4 march, 1976):1; and Paul H. Jacobson, American Marriage and Divorce, N.Y.: Rinehart of Co., 1959, p. 90.

7)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N.Y.: United Nations, 1976, pp. 371—72.

8) Paul C. Glick and Arthur V. Norton, Perspective on the Recent up turn in Divorce and Remarriage, Demography 10 (august 1973), pp. 301—14.

1975년에는 미국의 아동 5명중 1명이 부모가 없거나 편모 내지 편부 밑에서 성장하였다.⁹⁾ 1901년 부터 1975년 사이의 이혼율은 4.5 결혼당 1가족이 이혼을 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는 1.7 결혼당 1 가족이 이혼을 하여 60%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¹⁰⁾

이와 같은 통계의 의미는 곧 한미국제결혼이 얼마나 심각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예시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현재 추세대로 결혼이 계속된다면 연 4,000쌍이 결혼할 것이라고 미군 사회사업가로 일한 이 부일 미육군 소령은 말하였다.¹¹⁾

이러한 한미결혼의 심각한 이혼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정신분석학자,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가정치료자, 군목, 법관 등 여러 전문분야의 Team Approach가 요구된다.

한미결혼과, 직접 관련된 미육군과 공군의 군목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전문적 접근을 시도해 왔으나 언어의 소통문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언어소통의 문제는 능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의사교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의 가치관,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양식, 사물의 판단양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Professional 들로써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교환이론(Communication Theory)은 가족치료(Family Therapy)에서 의사거래진단(Transaction Analysis)과 행동수정(Behavioral Modification)과 함께 가장 중요한 치료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¹²⁾ Virginia Satir, Salvador Minuchin, Eric Berne 등 많은 가족치료 이론가들은 의사거래를 분석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족치료의 최상의 방법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Feldman 과 Scherz (1968)는 가족치료의 방법으로 Communication Theory를 활용할 때 그것들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의사거래 방법과 내용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³⁾ 특별히 Nonverbal Communication 일 때 Cultural Clue가 없이 그 Message를 치료자가 포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은 현재 한미국제결혼으로 파생된 가정들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교환이 어떻게 문화적 영향을 받고있는가에 대한 이론정립에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한미국제결혼 상담과 가족치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Computed from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 p-20, No. 287, p. 6.

10) Computed from the Bureau of Vital Statistics

11) Lee, Daniel B.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October 22, 1981.

12) Morton R. Startz, Family Services; Marital and Premarital Counseling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Y.: NASW, 1971, pp. 405-412.

13) Frances L. Feldman and Frances H. Scherz, Family Social Welfare, New York: athertan Press, 1968, pp. 250-257.

2. 논문의 목적

본 논문은 다음 세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한국여성과 미국 남성이 가정이라는 인간의 원초집단에서 의사교환을 할 때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사고, 태도, 관찰, 평가, 감정 등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차적 이론검토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이다. 둘째, 한미국제결혼과 관련된 전문적 이론가와 치료자들에게 한미국제결혼에서 생기는 가정 문제의 문화적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도 기초적인 단계에서 산발적으로 서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전문적 치료이론과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본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부인들의 의사교환에 대한 기능적 및 비기능적(Dysfunctional) 측면의 가설들(Hypotheses)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작업을 하는 데 있는 것이다.

3. 논문의 한계성

본 논문은 복잡한 측면을 내포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제한된 지면에 진행시켰으므로 다음 몇 개의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문화, 성격, 결혼, 의사거래라는 큰 구조개념(Construct)를 취급함으로써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등 다면적 접근이 불가피하나 현 기초 단계의 조사로써는 철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계획이 불가능하였고, 또 연구된 자료들의 연결이 어느 정도 산만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7년간의 임상경험에서 얻은 주관적 관찰과 제한된 논문결과에 기초하였으므로 가설설정에도 있어서도 한계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미국 내에서 생기는 문제는 한국에 재주둔한 가족과 연구논문 내지 이 문제를 미국에서 취급한 군목, 사회사업가, 심리치료자들의 간접적 보고에 의존한 한계성이 있다.

셋째,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가 의사교환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assimilation, acculturation, amalgamation, integration, conflict, adjustment, synthesis 등의 역동적 차원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단순히 한국 문화적 요소가 의사거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광범위한 임상적 접근을 한 제한점이 있다.

4. 논문의 중요성

본 논문은 비록 그 성격에서 탐색조사란 특색을 지니고 있으나 학구적 임상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한국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기반을 제시해 준다. 둘째,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한미결혼의 같

등, 이혼문제 등 이와 관련된 전문적 치료이론과 임상모델을 여러 분야의 전문치료자에게 제시해 준다. 특별히 미군산하의 치료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재료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앞으로 한국인이 계속 미국에 이민을 가고 또한 미군들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한 본 연구분야는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9년까지 서울이남 모든 미군주둔병의 가족생활을 허락할 준비를 갖추고 Family Life Center를 이미 미8군 군종실 산하에 설립하고 있다. 이들의 가정복지를 위한 실용적인 치료모델은 시급히 필요하므로 본 연구논문의 재료는 이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미국제결혼과 관련된 상담 및 정신요법(Psychotherapy)의 이론과 치료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와 성격과 의사전달(Communication)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로써 보다 조직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한 연구가설 설정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지난 6년간 미공군 6171기지 부대에서 행한 한미국제결혼상담 케이스 기록 약 200건을 재료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또한 여러 연구논문조사와 미공군 군목과의 인터뷰, 한미국제결혼 세미나 내용 등 주로 임상적 재료를 기초로 삼았다. 이 임상적 재료와 관계된 문헌연구로써 기본 연구이론을 추출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의 성격을 연구하는 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II.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한 기초적 개념과 이론 및 관계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의 개평을 하였다. “문화, 성격, 행동”의 분야는 본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광범위한 문헌이 소개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제한적 성격상 간단히 이론적 배경과 중요한 개념들을 상호관계적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한국인의 성격 이해에 도움이 되는 Jung의 성격이론을 문화적 가치관이라는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인 성격형성과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과 의사전달 갈등의 측면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Transactional Analysis, Communication Theory, Marriage Counseling 등 관련된 분야의 문화조사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제외시켰음을 밝혀 둔다.

1. 선행연구의 개평

미국군인과 한국여성들 간의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논문은 국내외에서 매우 희박한 실정이

다. 이것은 일반의 사회적 관심이 약하고 또 연구과제 자체가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으로 한국과 광대한 미국영토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연구를 진행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의 결과라고 본다. 이 분야에 관련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자들로 김 복림 교수(Bok-Lim C.Kim), 이 부일 교수(Daniel B.Lee) 등을 대표로 들 수 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학자로서는 박 종삼 교수, Stephen K.Kim 교수를 들 수 있다. 외국인 학 자들로는 David and Vera Mace¹⁴⁾, Herming Lynn Galbraith and Rabert S. Bernard (U.S. Army Chaplains), Harold G. Gateley (Chaplain), Bascom W. Ratliff, Harriett F. Moon, G.A. Bonacci, Arthur Kinsler, Bernie Palmer (Major)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한 미 8군 산하의 Chaplains Corps와 Community Lawyers 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논문의 학문적 질이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김 복림 교수는 그의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¹⁵⁾라는 논문에서 1958~1959년에 서울에서 미군군복의 결혼상담을 받은 47명의 한국인 여성과 남편, 미국에서 1960년대에 결혼상담을 한 한미국제결혼 7가족을 상대로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Field Study 에서 얻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사거래와 관련된 연구에서 상호문화의 물이 해로 사회적응, 가정적응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호간의 의사거래의 난점은 대화를 피하고, 심리적으로 부적합을 느끼며, 상호이해와 적응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한국의 문화와 친구들로부터 격리된 한국부인은 심각한 상실감과 고독감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¹⁶⁾ 그는 미국의 전문치료자들이 한국여인의 복종적 태도, 의존심, 자기 요구, 감정, 의견, 생각 등 표현을 주저하는 등 문화적 성격을 터득하여야 한다고 했다.¹⁷⁾

B.W. Ratliff, et. al. 은 “Intercultural Marriage: The Korean-American Experience”¹⁸⁾라는 논문에서 한국부인들의 문화적 가치관, 예로써 가족간의 유대관계, 언어장해, 감정표현, 재정 관리문제 등 국제결혼에서 봉착하는 문화적 충돌은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불행과 이혼을 예방하고 화해를 성취시킬 수 있다고 연구 보고하였다.

Harold G. Gateley 군복은 Oklahoma 주의 Fort Sill 육군기지에서 1976년 한미결혼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Staff Study of Korean American Families”¹⁹⁾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모든 미군장병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킴

14) David and Vera Mace, Marriage-west and West London: MacGibbon, 1960.

15) Bok-Lim C. Kim,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ans in Social Casework, Vol. 53, No. 5, May, 1972, pp. 273~279.

16) 김복림, Ibid, p. 278

17) 김복림, Ibid, p. 279.

18) Bascom W. Ratliff, et. al., Intercultural marriage: the Korean-American experience in Social Casework, Vol. 59, No. 4, April 1978, pp. 221~226.

19) Harold G. Gateley Staff Study of Korean American Families, 7 June, 1977, Submitted to Dept. of the Army, Hq, U.S. Army Feld Artillery Center and Fort Sill, Fort Sill, Oklahoma.

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호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보고서에는 미군남편의 41%가 의사교환이 제일 큰 문제이며 원만한 의사거래야말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열쇠라고 발표하였다.²⁰⁾

“A Socio-Cultural, Interpersonal Surve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Personnel —1978”²¹⁾이라는 제목하에 주목할만한 연구논문을 1979. 8.에 발표하였다. 「왜 한미국제결혼이 필요한가?」 「국제결혼 당사자가 서로 적응할 수 있는가?」 「국제결혼의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국제결혼에서의 남녀간의 역할수행은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의정부 지역의 미군기지인 Camp Casey, Camp Stanley, Camp Aouze를 중심으로 227쌍을 상대하여 연구 조사하였다. 특별히 FIRO-B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²²⁾를 사용하여 “Inclusion Need”, “Control Need”와 “Affection Need”의 차원에서의 대인관계요구에 근거한 대인관계 행동양상에 관한 이론을 한미결혼관계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Dating, 성(性), 재정, 가족관계, 문화적 차이, 미래계획, 결혼관계의 역할수행 등에서 미국남편과 한국부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²³⁾ 이것은 대부분 문화적 배경에 입각한 의식구조의 차이점에서 근원됨을 알 수 있다. FIRO-B의 조사에 의한 상호적응도(Compatibility)와 부적응도(Incompatibility)를 보면, 27.3%가 Inclusion, Control, Affection 측면에서 상호적응의 불능을 나타냈고 27.3%가 Inclusion, Affection 면에서 부적응 8.4%가 상대방의 Control need를 만족시킬 능력을 갖지 못하고, 7.9%가 애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실로 발견되었다.²⁴⁾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arch Finding (1981)”을 발표한 이 부열 교수는 “The Dyad Adjustment Scale (DAS)”을 사용하여 1979. 11. ~1980. 3.에 50쌍의 한미국제결혼가족을 Utah, Colorado, Washington에서 표본으로 추출하여 연구하였다. 성공적인 가정과 문제성이 있는 가정을 비교하여 연구한 가운데, 결혼문제의 최대의 난점은 언어소통의 문제였고, 그 다음이 한국부인의 문화적 배경이었다.²⁵⁾ 「국제결혼에서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희생하지 않고 만족한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1972년~1975년 사이에 한국에서 체험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적, 신앙적, 사회적, 치우적 등의 여러 각도에서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면 능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⁶⁾

20) H.G. Gateley, Ibid, pp. 2—3.

21) Chaplain (CPT) H.L. Galbraith and Chapkin (CTP) R.S. Bernard, Korean-American Marriage Applicants, A Socio-Cultural, Interpersonal Surve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Service Personnel-1978, A Survey conducted in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U.S. Army in Korea, April June 1978.

22) W.C. Schutz, FIRO: A three 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Rinehart & Co., 1958, pp. 1—80.

23) Galbraith & Bernard., op. cit., pp. 23—30.

24) Schutz, op., cit., p. 37.

25) Daniel B. Lee, op. cit., p. 10.

26) Daniel B. Lee, Ibid. pp. 15—16.

목회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Stephen K. Kim “Strategies for Ministry to Asian Wives of United States Servicemen”²⁷⁾에서 아시아 여인과 관련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군목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Asian-American 군목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논문의 결론을 짓고 있다. 특별히 미군남편들에게 동양의 가치와 사상을 교육시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국제결혼의 이혼에 있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연구에서 발견하였다.²⁹⁾ 그는 미군남편이 동양의 문화를 어떻게 보고 동양부인이 미국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연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³⁰⁾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여인과 결혼하고 한국대학에서 Shamanism 연구로 학위를 받은 Arthur Kinsler는 다년간 한미국제결혼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등을 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An International Marriage”³¹⁾라는 소책자를 양국어로 발간하여 미군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관계에서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밝히고 있다.

미 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군군인 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한 조사연구가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이라는 제목하에 석사학위논문으로 송성자에 의하여 발표되었다.³²⁾ 다른 논문과는 각도를 달리하여 한국 여인과 미군 남편간의 갈등의 원인을 성격의 차이와 화경적 차이점으로 나누어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서술적 내용분석에서는 역시 문화적 차이점에서 오는 행동과 태도의 갈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선행 연구논문이 있겠으나 본 논문의 성격상 더 이상 소개하지 않는다.

이상 소개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한미 국제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제결혼문제점 중 제일 큰 문제는 역시 한국여인들이 여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언어소통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의 제일 큰 문제가 곧 문화적 차이점으로 이는 태도, 행동, 사고 등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 편의 논문도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적, 체계적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재삼 강조된다.

27) Stephen K. Kim, Strategies for Ministry to Asian Wives of United States Servicemen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Francisco, Calif., June, 1978.

28) Stephen K. Kim, Ibid., pp. 216-217.

29) Stephen K. Kim, Ibid., p. 224.

30) Stephen K. Kim, Ibid., pp. 234-235.

31) Arthur Kinsler, An International Marriage, affile of the Command Chaplain Hq. UNC/USFK/EUSA, APO. SF. 96301.

32) 송성자 op. cit.,

2. 문화(Culture)와 성격(Personality)

문화, 성격, 행동(Culture, Personality, and Behavior);

국제결혼의 의사전달 갈등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의사전달과 밀접히 관련된 행동과 행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성격을 연구하여야 한다. 특별히 성격형성과 밀접히 연관된 문화적 환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세 가지 개념의 논리적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역사적 배경

문화와 성격에 대한 기본적 질문은 오랫동안 과학적 고찰의 값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이미 성격과 사회와 문화 사이에 확실한 관계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켰고, 이것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교육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통일된 관점이나 중요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성격에 관한 분야는 사회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불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논리적 전개나 실험적 증거보다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설명이 시도되었다. Emil Durkheim이나 A.L. Kroeber 같은 학자는 이 시기에 사회학과 인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써 설립할 것을 주창하면서 모든 제도적 양상을 본능이나 습관 등 개인적 요소들로 축소하려는 심리학자들에 대항하여야만 하였다. 그들은 독립적 영역으로써의 제도의 자율성을 주창하며 사회학적 사실과 심리학적 사실은 별개의 것으로써 문화와 성격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창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경제이론가들에 의하여 고수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이것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1930년대 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W.I. Thomas, Edward Sapir, Ralph Linton, John Dillard A. Irving Hallowell과 같은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은 전세기에 나타난 심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고도 문화와 성격의 논리적 가교를 성립시켰다. 또한 Margaret Mead, Gregory Batson, John W.M. Whiting 등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개체 발달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문화와 성격의 과학적 고찰을 하기 위한 기반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구축하였다. 비록 일반에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Ruth Benedict, Gaefrey Gorer와 그들의 동료들이 2차 대전후 수차례 발간한 근대국가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문화와 성격에 대한 연구로 간주될 수 있다.³³⁾ 그러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제도적 양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심리학적 설명으로 해석

33)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Co.

하려는 경향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일으켜 문화와 성격의 관계연구는 1950년경에 이르러 침체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 역사가들은 그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순수한 제도적 분석이 불충분한 것을 인정하며 사회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문제는 영향력 있는 사회이론가들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 속에서 제도나 공식적 이념 가운데 일어나는 행동은 분명하여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과장함으로써 인간이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저항하고 변화하려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한 데 있다. 이것은 과잉사회화된 인간을 주창하여 사회압력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³⁴⁾

Adam Smith 이후도 경제학자들이나 Durkheim 이후의 사회학자들의 견해에서 반심리학적 견해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들도 인간의 정신영역을 단순한 정도에서나마 인정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심리학적 전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합리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이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 현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연구자들과 함께 사회학들도 개인의 행동(성격)을 전체 인구(문화)의 차원에서 고찰하려는 체계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20여년에 걸친 무익한 논쟁과 방어적 자세를 벗어나 이제 문화와 성격의 연구는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성격 이론가들은 이 분야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할 기본적 질문과 이론적, 방법론적 준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³⁵⁾

(2) 문화, 성격, 행동의 관계

Personality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이 제각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정을 내리기는 곤란한 문제다.³⁶⁾ Ruch는 “성격은 어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이다”라고 하였다(Total impression with the individual makes upon the people around him).³⁷⁾ Personality라 할 때, 그 속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점도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점도 있다. Personality는 개인의 사회적 자극가치(Social stimulus values of an individual)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회적 내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Personality의 이론은 멀리 히포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아퀴나스, 벤담, 콩트, 홉스, 록크, 마키아벨리에서 엿볼 수 있으나,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로 발전한 것은 심리학 특히 Freud의 정신분석학이다. 또한 Adler, Jung, Horney, Fromm, Sullivan, Murray, Lewin, Allport, Sheldon, Eysenck, Rogers, Erikson, Skinner, Kelly,

34) D.H. Wrong, The Oversocialized Conception of Men in Moder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pp.183—193.

35) Robert.A. Levine,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36) G.W. Allport,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Holt, 1937, p. 52.

37) F.Ruch, Psychology and Life, Scott, Foresman & Co., 1944, p. 423.

Maslow 등 인간의 본질에 대한 여러가지 이해의 입장에서 성격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³⁷⁾

특별히 한미국제결혼에서 보는 성격차이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서는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성격이론은 물론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으로 성격이해를 시도한 Jung의 학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⁹⁾

문화(Culture)란, 가장 평이하게 정의한다면, 어느 사회의 하나의 생활방식(Way of Life of Any Society)이라 할 수 있다. 이 생활방식은 인지작용방식, 감정표현양식, 판단기준의 설정 등과 관계된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의 조직적인 총체를 문화라고 할 수 있다.⁴⁰⁾

한미국제결혼은 곧 두 문화의 심층적 근접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Personality 발달의 요인으로서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고찰할 것인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다.

Abram Kardiner와 Ralph Linton은 미국의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Comanche 인디안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⁴¹⁾ Ruth Benedict는 뉴멕시코의 Zuni 인디안과 펜쿠버섬의 Kwakiutls와 Melanesia의 Dobus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⁴²⁾ 이외에 Malinowski가 Melanesia의 Trobriand섬 사람을 상대로 한 것과 Margaret Mead의 뉴기니아 등지에서 연구한 것들은⁴³⁾ 문화의 성격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재료가 된다.

하바드 대학의 인류학자 Brandt가 한국 서해안의 한 어촌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양반문화와 일반 서민의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⁴⁴⁾

한미국제결혼을 문화적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한다면 결혼 내지 부부라는 관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⁴⁵⁾이 어떤 형태(Pattern)로써 나타나느냐 하는 것과 이 욕구만족행동의 기본이 되는 가치라는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의 고려도 필요하다.⁴⁶⁾ 여기에서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별히 한국여성들의 성격과 관련지어 Shamanism, 불교, 유교의 가치관 연구는 한미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해에 큰

38) C.S. Hall and G.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N.Y.: John Wiley & Sons, 1978(1957);

L.A. Hjelle and D.J. Ziegler, Personality, N.Y.: McGraw-Hill, 1976.

39) C.G. Jung, The Undiscovered Self, Mentor boo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58(1957).

30) Ralph Lint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45, p. 19.

41) A. Kardiner and Associates,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pp. 47-100.

42) Ruth Benedict, op. cit.

43) M.Mead, New lives for Old, N.Y.: Dell Publishing Company, 1956.

44) V.S.R. Brandt,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o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45) Joan W. Stein, The Family as a Unit of Study and Treatment, Reg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1973.

46) D. Lee, Are Basic Needs Ultimate?, in Kluckhohn (Ed.),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Y.: Alfred Knopf, 1955. pp. 335-40.

도움이 된다고 본다.⁴⁷⁾

3. Jung의 성격이론과 문화적 배경

Jung의 전체 성격구조는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분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들은 자아(Ego),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 및 그의 복합(Complex), 집합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및 그것의 원형(Archetypes), Persona, Anima와 Animus 그리고 影(Shadow)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체계에 더해서, 태도(attitude)로 내향성(Introversion)과 외향성(Extroversion)이 있고, 의식의 제기능으로써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감수성(Sensing) 및 직관성(Intuition)이 있으나 전성격의 중추는 자기(Self)이다.

이 중 Jung의 “집합적 무의식”, “태도” 및 “의식의 기능”은 본 연구, 특별히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종족의 역사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주고 있다.

Jung의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가장 현저하고 다른 학자와 차이있는 특징은 목적론과 인과율을 결합시키는 것이다.⁴⁸⁾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과 종족의 역사(인과율)와 그리고 목적, 욕망(목적론)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으로서 실존했던 과거와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 동시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Freud에게는 죽을 때 까지 본능적인 주체의 끝없는 반복이 있을 뿐인데⁴⁹⁾ Jung에게는 계속적이고 창조적 발달과, 전체성과, 완전성의 추구, 그리고 재생의 열망이 있었다.⁵⁰⁾

(1) 집합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한미결혼에서의 의사교환 갈등을 논할 때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한 한국의 문화가 특수한 미국의 문화와 상이한 의식구조와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 있겠는가? Jung의 집합적 무의식은 이와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을 “집합적 무의식”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집합적 무의식은 인간의 조상대대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 기억흔적의 저장소인데, 그 과거란 개별종족으로써의 인간의 종족적인 역사뿐 아니라 또한 인간 이전의 동물조상으로써의 종족적인 역사도 포함한 것이다.⁵¹⁾ 그리고 집합적 무의식은 인간생활에서의 개인적인 것들과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보편적인 것 같이 보인다고 주장한다.⁵²⁾ 집합적 무의식은

47) 윤택림,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77, pp. 130—206.

48) C.S. Hall and G. Lindzey, op. cit., pp. 113—154.

49) S. Freud, The Basic Writings of Sigmund Freud, in A.A. Brill (Tr. and Ed.) N.Y.: The Modern Library, 1938, pp. 16—19.

50) C.S. Hall and G. Lindzey, 성격의 이론,李志永外 共譯,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3, p. 83.

51) C.S. Hall and G. Lindzey, Ibid, pp. 113—154.

52) C.S. Hall and G. Lindzey, Ibid, pp. 113—124.

성격의 전체구성의 유전적, 종족적인 기반이며, 인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집합적 무의식에 의해서 대부분 형성된다고 보았다.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한 공포와 위협, 갈등, 남녀관계, 애증 등은 집합적 무의식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⁵³⁾ Jung의 심리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영혼(Soul)*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심리작용 전체를 뜻한다. 결국 인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격은 의식과 무의식의 양면을 다 고려하여야 한다.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은 그 정신이 지성처럼 의식에만 묶여 있는 듯 하다. 서구인이 지닌 본능적인 면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지성적인 면이 지나치게 분화됨으로써 그 기능을 잃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의 자연적인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은 서구인들의 독특하고 특이한 운명이다.⁵⁴⁾ 그런데 집단체는 개체의 단순한 축적인 만큼 집단체의 문제는 역시 개체의 문제이다. 서구인들이 자체의 문화를 동양의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자연적으로 한미국제결혼의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Jung은 “의식의 제기능”과 “태도”에서 동서양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2) 의식의 제기능들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가지 심리적 기능이 있는데,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감각(Sensing) 및 직관(Intuition)이다.⁵⁵⁾ 이를 Jung은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외면세계 혹은 내면세계에서부터 나타나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어떻게 심리적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소화시키느냐의 양식으로 설명한다.

Jung은 사유와 감성의 양식*을 토론함에서 사유는 사고 혹은 인식하는 행동 예들들면 논리적인 추리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하려는 기능이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성의 기능은 “유쾌 혹은 불쾌 수용 혹은 거절”의 기능에 기초를 둔 평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기능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능이기에 때문에 이성적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주어진 시간에 서로가 배타적이다.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지배하지 못한다.

Jung은 다른 두가지 기능, 즉 지각(Sensation)과 직관(Intuition)을 비이성적인 기능이라 부른다. 이것들은 이성을 방해하며,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다만 평가받지도 못하고 해석되지도 못한 단순한 지각작용과 함께 움직인다. 지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감지한다. 이것은 현실적인 감각으로 사물의 유전적인 잠재적 내용을 탐지하는 무의식적이고 “내면적

53) 율란디 야코비, 이태동역, 칼 융의 心理學, 서울:성문각, 1978,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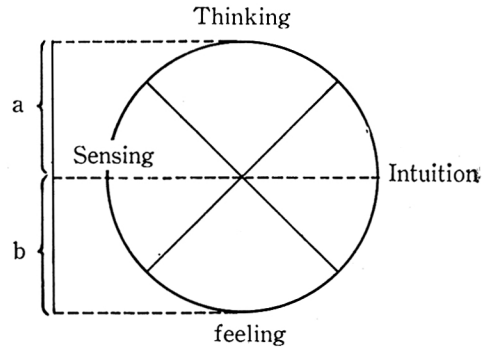
* 참조; Jung의 전문적 용어에서 영혼(Soul)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일종의 “내면적 성격(inner personality)”으로 개인의 자아의식이 외부의 어떤 대상과 관계지워지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의식과 관계를 맺는 “심리 주제”로써 특징지을 수 있는 명확하고 제한된 기능을 가진 하나의 complex의 의미로 사용한다.

54) Jolandi Jacobi, Ibid, p. 257.

55) C.S. Hall & G.L. Lindzey, cp. cit., p. 92.

지각” 능력을 통해서 한다. 반면에 직관유형은 세 부적인 사항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나 사건의 내면적인 의미와 효과를 식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갖지 않는다.

<도해 1>은 지금까지 논한 네 가지 기능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상반부에 속하는 “상급기능”(Superior Function)은 의식의 영역이며 사유가 이에 속하게 된다. 하반부 b에 속하는 “하급기능”(Inferior Function)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감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지각과 직관의 기능의 일부는 의식속에 일부는 무의식 영역에 놓여 있다.



<도해 1>

자기가 어느 유형의 기능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상급기능 유형의 힘과 안전성과 지속성 및 적응도에 의해 어떤 기능이 분화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분화했는지를 인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일이나,⁵⁶⁾ 하급기능에 관여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유동성, 다른 것에서 부터 영향을 쉽게 받는 안이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난폭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⁵⁷⁾

오랜동안의 임상적 관찰로 볼 때, 미국남편은 사유기능이 발달된 반면 한국부인들은 감성기능이 발달된 듯 하다. 이리하여 미국남편들은 한국부인들의 사고와 행동과 태도에서 보여주는 모호성을 불평하는 반면, 한국부인들은 미국남편들의 예측할 수 있는 행동과 사고방식등 철학이 얇은 인간이라고 상담에서 불평을 호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3) 태도의 제유형 (Attitude)

네가지 기본적인 기능은 두개의 일반적인 태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외향성 (Extrovert)과 내향성 (Introvert)이다. 여기에서 말한 내향성 혹은 외향성은 우리들이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와 우리들의 주관적 경험의 성격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인 행동까지도 결정하는 반응의 습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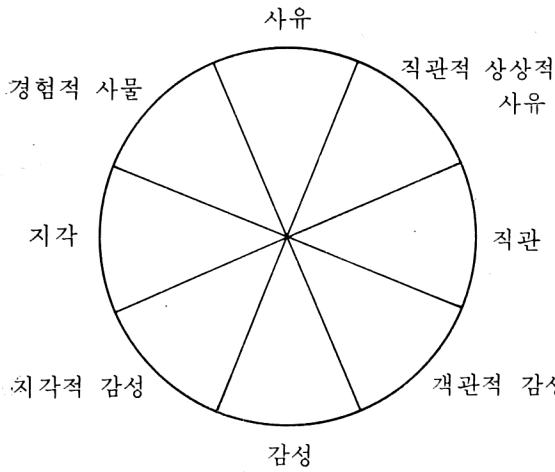
외향성은 객관적 사물과 긍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며 내향성은 부정적인 관계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외향적인 사람은 그의 적응 및 반응형태에 있어서, 외부적인 집단규범

* 참조; 감성 (feeling) 과 지각 (Sensing) 을 영어에서 처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이는 불어에서 감정 (Sentiment) 과 지각 (Sensation) 이라는 두가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명백히 표시된 것이다.

** 참조; 이 도해는 이론적인 모델이며 실제응용에 있어 우리들은 결코 기능이 한쪽으로만 그렇게 격심하게 발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56) C.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lated by W.S. Dell and C.F. Baynes, London: Kegan Paul, 1938, p. 107. 때때로 개인의 하급기능은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격에서 유출할 수 있다.

57) Jolandi Jacobi, *Ibid*, p. 30.



<도해 2>

때 미국남편은 외향성 태도를 지닌 편이고 한국부인은 내향성 태도를 나타내는 듯하다. 그러므로 <도해 2>에서 보는 바 미국남편들은 외향성—사유의 조합으로 사유+지각에서 “외향적 경험적 사유”와 사유+직관에서 “외향적, 직관적 상상적 사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부인들은 내향적—감성의 조합으로 감성+지각에서 “내향적, 지각적 감성”을 나타내고 감성+직관에서 “내향적, 객관적 감성”을 보이고 있다.

및 그 시대의 정신 등등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지배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내면적인 사람의 태도는 주로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대상과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며 느끼고 행동한다.* 내면적인 사람에게는 주관이 그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반면에 객관적인 대상은 다만 2차적이고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의 첫 행동은 “조리없는 언어로 거절하는 것처럼”⁵⁸⁾ 뒤로 후퇴해서 자기자신에게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찰한 경험에 토대하여 볼

4. 한국인의 성격 형성과 문화적 가치관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한국인의 성격에 관련된 연구가 1960년대에 최재석⁵⁹⁾ 김태길⁶⁰⁾ 등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회학적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족관계 및 집단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도 김재은을⁶¹⁾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한미 결혼관계에서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의사거래 갈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초체계를 설정한 한국학자는 윤태림⁶²⁾⁶³⁾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연구는 한국인의 의식배경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민족성과 보편적인 성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한국부

* 참조; 그러므로 종종 Jung이 하나의 “Orientation type”이라고 말한다.

58) C.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lated by W.C. Dell and C.E. Baynes, London; Kegan Paul, 1938.

59)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60) 김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일조각,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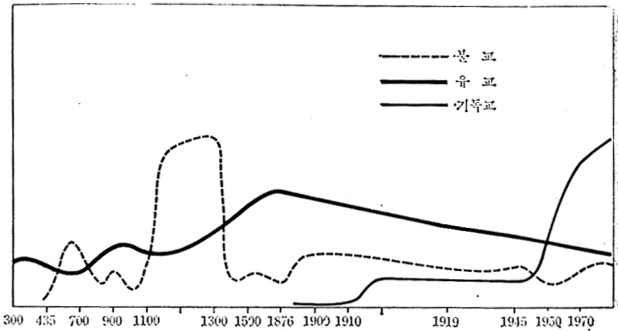
61) 김재은,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74.

62) 윤태림,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77.

63) 윤태림,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현암사, 1970.

인들의 행동의 의미를 미국남편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임상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⁶⁴⁾ 한국인의 성격연구에서 윤 태림은 특별히 Jung 의 성격형성이론에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논함에 있어서 유전인자, 조상, 풍토, 역사, 종교, 정치, 경제, 문화등 여러 인자들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특별히 세가지 중요한 개념적 요인이 오늘날 한국인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있어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의 외세의 침략, 혹독한 풍토의 영향, 긴 역사를 통한 지배계급의 착취행위 등으로 들고 있다.⁶⁵⁾ 이 세가지 요소가 폐쇄적 성격을 형성시켰고, 이로써 현대 한국인의 폐쇄적 사고방식, 사물관찰과 판단, 의식주 등과 관련된 모든 생활양식 즉 한식 한복 한옥등 독특한 한국의 문화를 형성시켰다고 피력한다. 윤 태림의 접근에서 한국인의 행동과 인간관계등 의식구조의 밑바닥을 심리학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행동을 성격과 문화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성격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요소는 역시 유교의 영향이다. 물론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근대 기독교의 영향이 근대 한국인들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도해 3>에서 보듯 사실이었으나⁶⁶⁾ 역시 현대 한국인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교의 유산이라고 본다. 더우기 한미국제결혼에서 한국여성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유교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는 심층적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윤 태림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의 성격이 계층의식, 가족단위, 가학적인 관리와 피학적인 민중, 사리분석보다 인간관계 중시, 권위에의 중시, 체면, 미래보다 과거나 현세중심 등의 개인이나 사회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상을 논하고 있다.⁶⁷⁾



<도해 3> 주요 종교의 발전적 단계

특별히 전통적 한국인의 가치관을 연구한 최 재석의 종합적인 결론에서 첫째, 부모에 대한 효의 가치관,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 세째, 집, 가족의 구조는 한미결혼에서의 한국부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의식구조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⁶⁸⁾

64) 본 논문의 연구자는 1975년—1982년 사이에 미공군 보조군복으로 한미결혼 전문상담을 통해 임상실천을 했으며, 한미군 8군산하 군복들에게 한미결혼과 문화적 갈등을 교육하였음.

65) 윤태림, op. cit., 1970.

66) 박중삼, 로스엔젤스 한국 이민의 전통적 한국가치관과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삼세대간의 비교연구, 미국남가주대학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논문 p. 46.

67) 윤태림, Op. Cit., 1970, pp. 125—268.

68) J.S. Choi, Traditional Values in Korean Family, Journal of Asiatic Studies, 7, No. 2 (1965), p. 43.

이외에도 한국인의 유교적 가치체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홍 승직(1969), 김 태길(1967), 이 만갑(1968), 김 경원(1971) 등 많은 학자들이 1960년대 후반기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들의 견해는 모두가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을 띠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 속에서의 사회행동이 나타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유교적 권위주의를 전제로 연구되어진 한국 연구 풍토속에서 전술한 바 있는 하바드대학의 인류학자 Brandt 박사는 한국 서해안 어촌에서 2년동안 임상연구를 통하여 유교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였다.⁶⁹⁾ 즉 한국인의 성격이 권위주의와 평등주의의 복합성을 평민계층에서 나타내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Brandt는 가치체계의 요소들이 사회계층에 따라서 공식적 가치체계와 비공식 가치체계의 두 주제로 분류됨을 관찰하였다.⁷⁰⁾ 공식적 가치체계는 유교의 권위주의적 윤리체계로 소수의 양반계층(현대적 의미)에 의하여 준수되었고, 비공식적 가치체계는 평등주의적 지역사회의 윤리로서 대다수의 부락민(평민)들이 지키고 있었다. 평등주의(Equalitarianism)로 나타난 행동은 상호협동, 친절, 궤대, 인내등을 가정생활과 마을생활에서 나타내고 있었다. 이리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권위주의적인 공식적 가치체계(사회행동)가 평민들의 원초적 평등주의의 비공식 가치체계에 도전받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양반계층이나 평민계층이 모두 유교의 가치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성격이 공식적 비공식적 가치체계가 복합되어 선택적으로 작용함도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한미결혼에서 한국어성들의 행동양상을 전적으로 권위주의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한미결혼가족 치료자들이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서구민주주의 바탕에서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가치 체계위에 형성된 미국남편들과 결혼한 한국부인들의 유교적 가족주의, 상하질서의의식, 공동체 지향의의식등은 의사교환의 심각한 갈등의 소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Brandt의 연구결과와 같이 최 재석은 전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상호관계(부부관계도 포함)에서 혼동을 나타내고 있다⁷¹⁾고 주장한다.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혼동, 이성과 감정의 혼동,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혼동등 미국남편들으로써는 이와같은 혼동된 기반위에서 한국의 문화적 이해와 느낌이 없이는 의사교환을 시도한다는 것이 곧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성격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이 매우 희박함을 생각할때 근대 성격이론에

69) V.S.R. Brandt,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70) Brandt, Ibid, pp. 25-29.

71)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1976, pp. 186-194.

입각하여 한미결혼상담이나 가족치료, 정신요법(Psychotherapy)의 이론을 발전시킨다는 이 과정에는 시간이 요할 줄 안다. 다만 Psychodynamic에 입각한 한국인의 Ego 기능을 실험연구하고 특별히 다른 문화 속에 노출된 한국인의 Ego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해답이 곧 한미결혼의 의사교환갈등의 해결에 열쇠가 됨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여성들의 성격이 유교의 권위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면 Authoritarian Personality⁷²⁾에 대한 이미 연구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것을 한국의 문화라는 변수에 맞추어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작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과 의사전달 갈등(Communication Conflict)

초기의 프로이드학파의 정신분석학적치료자들은 모든 개인이 문화적 배경을 초월한 본능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요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성적(libidinal) 공격적 충동이 특정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자나 심리요법자들은 갈등 부부 상호간과 그들이 치료자에 대한 태도에서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한 정신역동기능(Psychodynamic Functioning)을 취급함에서도 문화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한미국제결혼의 가정문제를 치료함에서 문화적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reud가 성격의 구조를 설명함에서 초자아(Superego)의 형성이 부모의 역할과 함께 얼마나 강하게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말함으로써 정신분석학에서도 문화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⁷³⁾ 정신분석학자들 중에는 자아(Ego) 기능이 문화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별히 Hartmann은 개인의 자아적응기능이 부모나 주위집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남을 기술하고 있다.⁷⁴⁾ Kaufman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도 그 많은 부분이 학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이나 “공격성”은 본능적 힘과 함께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았다.⁷⁵⁾ Hartmann, Nunberg, French와 다른 학자들은 아동기의 쾌락원칙이 서서히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로 대치되며 그 후에 문화의 강조점에 의하여 수정된다고 보았다.⁷⁶⁾

그러므로 한미국제결혼의 의사전달갈등문제를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힘이 초자아(Superego)의 형성이나 자아(Ego)의 상호적응기능 및

72) Roger Brow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the Organization of attitud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477-548.

73) S. Freud, op. cit., 1938.

74) Heinz Hartmann, Ego Psychology and the Problem of Adaptation, Trans. by David Rapapor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8.

75) I. Charles Kaufman,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Animal Behavior Studies for the Psycho-Analytic Concepts of Instinct Energy, and Drive, International Journal

76) T.M. Abel & R. Metranx, Culture and Psychotherapy, New Heaven, Conn., United Printing Service, 1974, p. 181.

원초적 본능(id)의 표현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1) 치료목표와 문화적 배경 (Therapy Goals and Cultural Background)

정신분석학자와 정신과의사들은 치료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접근을 하고 있다. 한가지 접근은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치료목표를 환자로 하여금 자기행동의 형태와 태도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개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화시키는 전형적인 정신분석학적 입장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접근은 환자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제와 사회의 행동양식에 적응하게끔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Jerome Frank 는 전형적인 서구의 정신분석이 지적이해와 섬세한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리(Dogma)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한다.⁷⁷⁾

한미결혼에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부인들이 미국환경과 생활에 적응과정에서 오는 사회심리적 문제해결의 목표는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Moloney 는 일본사람들이 정신분석을 함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일본 사람의 정신분석의 치료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엄한 권위로부터 독립하여 이성적 측면은 물론 감성적 측면에서 스스로 자기선택을 하게 하는 일이 어렵다고 했다. 일본사람들은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개인은 이 전체 단위의 일부로 생각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의 일부로써 생활을 초자아로 삼고 살고 있음으로 전통적 정신분석의 목표설립이 어렵다고 했다.⁷⁸⁾

이와같은 경향은 한국부인의 경우, 자기 가정을 철저한 초자아로 받아들여 미국남편들이나 치료자들이 그들을 가족체계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인격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Doi가 일본사람의 성격을 분석한 바와 같이⁷⁹⁾ 한국부인은 자기의 개성을 가정에서 독립시키기가 어려운 결과 가정이나 권위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정신분석에서는 이와같은 의존을 치료자들이 원치 않지만 1917년에 창시한 Morita Therapy⁸⁰⁾와 같은 동양적 접근에서는 오히려 이 동양문화적 요소인 의존(Dependency)을 권장하고 있다. Caudill은 Morita Therapy의 핵심을 설명하기를 환자가 자기 본래의 본래(Original Nature)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의 일체감을 갖게하는 것이 치료목표라 하였다.⁸¹⁾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서구적 접근에서 보는 갈등이나 병리가 아니고 환자에 잠재

77) J.D. Frank, *Persuasion and Healing;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1961.

78) J.C. Moloney,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Japanese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53, Vol. 34, pp. 291-303.

79) L. Takeo Doi, *Some thoughts on Helplessness and the Desire to be Loved*, *Psychiatry*, Vol. 26, 1963, pp. 266-72.

80) S. Morita *The True Nature of Shinkeishitsu and Itô Treatment*, In *anthology of These Commemorating the 25th anniversary of professor kure's appointment to His position*, Tokyo, 1953.

81) William Caudill, *Observation on the Cultural Context of Japanese Psychiatry*,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ed. M.K. Opler (Ed.) 1959, pp. 213-43.

한 건설적 힘(Constructive Force)인 것이다. 한미결혼에서 미국남편들은 한국부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완전히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매우 심하다. 또한 미군 전문치료자들 사이에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전통적 정신분석을 한국부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정치료상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미결혼의 갈등문제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자, 정신치료자,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환자의 문화적 배경관계를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

(2) 비언어적 의사전달 (Nonverbal Communication)

한미결혼의 부부간, 그리고 그들과 치료자간의 의사전달은 언어와 비언어, 직접 또는 간접 암시 또는 명백한 표현,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들 등 여러 차원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문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촉각의사전달(Tactile Communication)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상대방으로써는 쉽게 터득할 수 없는 측면이다. L.K. Frank는 어린이와 어머니간의 촉각적 의사교환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얼마나 상이한가를 토론하면서⁸²⁾ 아기를 담요로 감싸는 방법, 끌어안는 방법, 목욕을 시키는 방법, 아이를 재우기 위해 두드리는 방법등에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문화적 풍습은 성격형성과 이에 따르는 행동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문화는 신체구성, 육체발달, 성질등 아동의 독특한 성격형성을 촉진하거나 항진하는 촉각적 접촉 및 자극의 thresholds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L.K. Frank는 각 문화마다 어린이의 초기 촉각경험에 기초하여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발달해야 하는 개인의 행동이 초기 촉각경험의 대치 내지 상징적 촉각의 만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인사, 게임, 환자돌보기, 성행위 많은 행동발달이 아동기 촉각의사교환의 영향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⁸³⁾ 따라서 한미부부간의 의사전달에서 촉각적 방법은 중요하며 결혼상담 또는 정신요법에서의 Tactile Communication은 가장 중요한 치료도구로 간주되므로 상대방 문화의 촉각적 의사전달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이다.

(3) 의사교환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측면(Time and Space: Aspects of Communications)

시간이나 장소를 대하는 개인들의 문화적 태도로 인한 갈등은 결혼생활이나 심리치료의 의사전달을 심각히 방해하고 있다. 부부간에 사용하는 “조금 있다가” 등 시간적 개념의 이해, 약속시간 지키기, 그리고 심리치료 결과에 대한 시간적 효과의 기대는 개인적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한국과 미국문화의 영향하에 학습된 태도에 따라 그 이해와 해석이 상이함을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한국부인이 약속시간에 늦는 것에 대하여 미국남편이 느끼

82) See the films; *Bathing Babies in Three Culture* (1952) and *Four Families* (1961):

L.K. Frank *Tactile Communicatio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Vol. 56, pp. 209—55.

83) L.K. Frank, *Ibid.*

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삼지 않고 있어, 미국남편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한국부인의 해석과 반응은 그 분노의 원인이 시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오해내지 곱해를 하여 부부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간(Space)을 중심으로한 부부간의 대인관계에서도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의사거래의 갈등을 일으킨다. Hall은 대인관계에서 유지되는 거리와 공간간격이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⁸⁴⁾ 또한 Hall과 Whyte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미국남성들은 약 2 feet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다.⁸⁵⁾ 이와같은 미국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한국부인들은 남편들이 냉정하거나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고 자신도 이에 따라 부정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결혼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임상적 관찰에서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약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부인들은 가끔 모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어떤 때는 시간약속을 융통성이라는 개념하에 자기가 잘 지키지 않고도 잘못을 느끼지 않는가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오며는 강직한 시간엄수를 요구하는 불일치성을 보인다. 한국의 권위적 문화권에서 성장한 한국부인이 시간엄수 해석에서 어떤 때는 약속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자아(Ego) 기능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다.

(4) 문화간의 가치와 의사전달(Cross Cultural Value in Communication)

한국부인이나 미국남편이 상담, 정신치료, 정신분석등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그들은 미국문화나 한국문화의 독특한 배경을 갖고 접근한다. 또한 전문적 치료자는 한국이나 미국등의 문화가치적 배경을 토대로 신념, 목적, 성격, 사고방식, 태도,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양식 등 어떤 측면은 의식하고 어떤 측면은 무의식의 차원에 놓아 둔 채 의사교환을 하게 된다.⁸⁶⁾ 이와같은 사실은 한미결혼상담의 초창기나 심리요법 초창기에 커다란 난제를 제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사업가들은 국제결혼부부, 이민, 피난민 등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의식구조와 경험, 감정적 차원에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타문화권의 환자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기대하기가 어렵다. 능숙한 사회사업가들은 인류학적 생활재료를 이해하고 탐색함으로써 심리문화적(Psychocultural)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상관찰의 결과에 따르면 이와같은 문화가치의 문제점이 결혼초기 또는 가족치료의 초기가 아닌 후기에 나타날 때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적 근원에서 야기되는 문제인지 또는 개인적인 특이성 때문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Jules

84) Edward T. Hall, a System of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5, 1963, pp. 1003-46.

85) E.T. Hall & W.F. Why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guide to Men of Action, in Communication and culture, ed. A.G. Smith, New York: Holf, Rinhart and Winston., pp. 567-575.

86) Charlotte Buhler, Value in Psychotherapy,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962.

Henry는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이 두 사실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였다.⁸⁷⁾ 예로 미국남편들은 가끔 한국부인들의 몸무게에 관심을 갖고 “diet”를 강요할 때가 있어 갈등을 일으킨다. 한국부인의 의식구조에는 아직도 “살찐 것이 건강하다”라는 빈곤시대의 의식구조를 갖고, 부자집 양반들의 Body Image를 의식구조 속에 갖고 긍정적 해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반면 미국문화는 “살찐 사람”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에서 자제력이 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 질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등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또한 한국부인들이 여름에 양산을 바치고 외출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남편들의 해석은 부정적이다. 피부에 태양열을 받는 것은 건강상 좋으며, 또한 양산을 바치고 다님으로써 부인이 남편에게 전체적인 주의력을 주지 못한다는 불평이다. 이런 반면 한국부인들은 “흰 얼굴”색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양반가정의 부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안방에만 거한 결과 흰 얼굴색을 갖게 되었고 가난한 농부부인들은 햇볕에서 일한 결과로, 꺼실린 얼굴색은 곧 천민과 고생을 상징함으로써 흰 얼굴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식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증명되리라 본다.

이와같은 동일한 행동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와 고통을 초래할 심각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은 결단코 경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부인들이 미국에서는 어떤행동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Jules Henry⁸⁸⁾의 연구문헌등에 접하고 미국남편들이 한국의 풍습, 예의범절을 이해하는 일은 상이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전문적인 치료상황에서 야기될 많은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문화적 역동의 장점을 의사거래에 활용하여 상황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요소로 만들 수도 있다.

Ⅲ. 임상상담에 나타난 한미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

주한미군산하에서 한미국제결혼상담을 하고 있는 군목, 민간군목,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법률고문관들은 지난 수 년간 동안 회합, 세미나, 강습회 등을 통하여 어떤 분야의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해 왔다. 한미국제결혼은 그 성격과 내용면에서 너무나 광범위하므로 일정한 내용의 상담 내지 지도(Guidance) 프로그램을 확정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지금까지 미8군 군종실의 주관하에 실제 상담자로 부터 수집된 상담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쌍방의 문화의 독특성 2) 재정관리 3) 의사교환 4) 상호적응 5) 가정과의 관계 6) 성문제

87) Jules Henry, Cultural Objectification of Case Histo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19, pp. 655-73.

88) Jules Henry, Culture against Man, New York: Random House, 1963.

7) 법률문제 8) 남편과 부인의 역할분담 9) 상호기대 10) 사회생활 11) 살림장만문제 12) 종교 13) 애정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갈등처리, 상호협동, 결정된 행사, 미국에서의 적응, 언어교육등 여러분야의 상담이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결혼수속, 비자신청, 법적권리, 취직등 구체적인 문제도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어떤 분야의 상담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까지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 한미결혼 상담자를 상대로 상담분야 설정을 위하여 1982년 3월 미8군 군종휴양관에서 “Paired Comparis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 즉 1) 애정과 가정 2) 의사교환 3) 문화적 배경 4) 상호적응 5) 상호요구와 기대, 6) 재정관리로 나타났다.

미 8군 본부 법무관실, 법률자문관 Capt, Martha J. Trudo⁸⁹⁾의 보고에 따르면 한미국제결혼은 도박과 같은 것으로써 1979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190가정이 법률자문을 신청해 왔으며 이중 5년내에 이혼을 하지 않을 가정은 불과 190가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rudo 대위는 이혼의 가장 큰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의사교환(Communication)과 금전문제라고 단정지었다.

본 연구자는 지난 1976년부터 1982년 현재까지 광주미공군기지 민간군목으로 근무하여 주로 한미국제결혼상담을 실시하며 많은 사례를 취급하는 중 약 200케이스를 심층적으로 상담할 있어 이 재료를 기초로 다음 다섯가지 분야, 즉 1)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2) 그들의 가정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갈등, 3) 금전관리에서의 문화적 갈등, 4) 언어장해와 문화적 갈등 5) 성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갈등을 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보다 과학적인 실험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사회생활, 미국생활 적응등 조사 분석할 분야가 많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선 다섯 분야만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로 사용된 자료는 한미결혼 초창기 (1년~3년) 한국에서 행한 사례이므로, 미국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미 8군 산하 여러 부대의 한미결혼 자문을 제공하고, 실제 특별상담, 상담자교육 훈련을 통하여 미국사회 속에서 한미국제 결혼가정이 어떠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하여 본 연구에 참조하였다.

상담은 결혼상담과 결혼전상담으로 구분되나 실제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상 계약결혼의 형태로 동거를 하다 결혼을 결실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므로 이 양자는 대인관계의 역동적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주어 실질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89) International Marriage: What are the Odds in Korea? by Steue Silvers, USAV PAO#79-4.

1.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문화란 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냄으로(T.M. Abel & R. Metraux, 1974) 서로 다른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속에 자란 미군과 한국여성은 가치관, 사물을 관찰하는 측면, 경험을 개념화하는 작업, 자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광범할 만한 차이점을 결혼상담 중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분석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의 요소를 임상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Jung의 학설에 따르면 미군들은 지나치게 지성적인 면이 분화되어 한국인처럼 무의식과의 관계성을 상실해 버린 상태로(Jacobi, 1978) 둘 사이의 의사거래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사회학적 과정에서 고찰하더라도 Gemeinschaft적 문화 배경을 지닌 한국여성과 Gesellschaft적 문화배경을 지닌 미국남성 사이의 의사거래란 갈등을 면치 못할 수 밖에 없다.⁹⁰⁾ 미국남편과 한국부인의 문화적 갈등은 역할과 원형변수(Roles and Pattern Variables)에서, 구분하는 1) Universalism-Particularism 2) Instrumentalism-Expressiveness 3) Specificity-Diffuseness, 4) Ascription-Achievement (Parsons and Shils, 1951: 76-91)⁹¹⁾ 등 대조되는 차원에서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pecificity와 Diffuseness 차원에서 볼 때 미군남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가 할 것인가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데 한국부인들은 그와같은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인관계의 접근은 사업에서나 적용될 원칙이지 결혼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에서의 역할분담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제는 한국부인들은 한국문화 속에서 부인으로써의 역할기능을 학습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나 서양문화에서 주어지는 역할기능은 상이하므로 구체적 차원에서 의사교통을 하는 습관을 배워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에서의 가장 큰 문화적 갈등의 요소는 역시 한국의 체면문화와 미국의 가치문화의 차이에서 온다고 본다. 한국여성들은 분명히 체면에 입각해서 사회행동을 하며 이에 대하여 미국남편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체면은 곧 타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율성을 가치로 삼는 미국남편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 지나치게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생활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지고, 또한 남편과 부인간의

90) Ferdinand Tönnies,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 Translated and Edited by C.P. Loomis as *Community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aw, 1963.

91)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결혼생활에 제 3자가 관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남편들은 “왜 타인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느냐”하고 항의한다.

미국남편들이나 전문상담치료자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여성들의 성격형성을 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윤 태림, 1977: 최 재석 1976), 결혼상담에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한 한국여성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기 쉽다. 유교문화는 심리치료(Psychotherapy)나 상담(Counseling) 영역에서는 일종의 행동강령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적 유교는 상급자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하급자에게는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행동가치 체계라고 본다(박 종삼, 1975: 43—63). 한국여성들은 삼강오륜의 행동강령하에서 굴종의 오랜 역사(Jung의 Collective Uncscious) 속에서 성격이 형성되어 왔으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회행동을 보이는 것 같지만, 미국문화와 같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곧 내면적인 인간 본연의 욕구, 곧 자유와 평등을 주창하게 된다(Brandt, 1971).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미국남편들의 한국여성에 대한 역할기대가 유교적가치관에 입각하여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대부분의 미군들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여성들 보다는 한국의 여성들이 복종심이 강하고 남편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이 미국남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압제적인 유교적 통제에서 벗어나 평등한 대우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미국남편의 역할기대와는 상반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임상케이스에서 분석된 사실은 많은 한국여성들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여성들의 복종적 위치에서 오히려 지배적인 역할로 급전환 하여 미국남편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경향을 본다. 즉 평등주의에 입각한 인격 대 인격의 대인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복종과 지배되는 대인관계가 한국부인들에게 혼돈되어 가정생활에 나타남으로써 미국남편들은 상호행동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심리역동적(Psychodynamic)한 측면에서의 이와같은 한국여성들의 사회행동 이해는 가능하다고 본다.

강한 Superego(엄한 유교가치)의 지배하에 있는 Ego의 기능은 Id의 만족을 억제하고 Superego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타율적인 인간이 된다. 사회의 규범과 전통등을 잘 지켜나가는 여성이 되겠지만, 인간본능의 요구(Id)는 그렇게 무조건 억제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Freud). 그러므로 사회통제(Superego)가 결여된 곳에서는 사회성이 결여된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곧 한국여성들의 Ego는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정당한 기본요구를 억제하는 모순된 제도하에서 Superego와 Id를 잘 통합하는 자율적 기능이 상실되고, Ego가 Superego의 시종을 듣거나 또는 Id의 시종을 듣게 되어 Universalism-Particularism의 대조적 역할수행에서 보편 타당성을 지닌 Ego의 기능보다는 종잡을 수 없는 Particularism에

빠지기 쉽다. 미국과 같은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의 Ego의 기능은 권리(Id)와 책임(Superego)이 어느 정도 잘 통합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Universalism)을 나타냄으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담감 없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한미국제결혼의 부부갈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Eric Berne의 의사거래진단(Transaction Analysis)⁹²⁾을 치료 모델로 사용하는 전문치료자들은 한국여성들의 “어른”(Adult) 기능의 자율성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남편들은 한국여성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I’m not O.K.-You’re O.K.”라는 한국부인들의 외부적 의사전달을 받는다. 그러나 행동면에서는⁹³⁾ “I’m O.K.-You’re Not O.K.”로 나타나 의사거래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 결국 외부로는 Ego가 Superego에 봉사를 하면서 내부로는 Ego가 Id에게 봉사하는 이중적 내지 혼돈된 Message를 미국남편이 받고 당황함을 사례연구에서 발견하였다. 이것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유용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줄 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 임상적 관찰에서 Jung의 학설에 나타난 전반적인 동양인과 서양인의 성격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안다(C.S. Hall and G. Lindzey, 1957). 특별히 Isabel Briggs-Myers가 개발한 “The Myers-Briggs Type⁹⁴⁾ Indicator”를 갖고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네가지 기본 성향(Preference) 즉 Extraversion-Introversion(EI) Sensing-Intuition(SN), Thinking-Feeling(TF), Judgement-Perception(JP)을 한미국제결혼의 당사자들에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는 기본구조를 설명해 준다. 한국여성들에게는 Introversion-Intuition-Feeling-Perception(INFP)의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남편들에게는 Extraversion-Sensing-Thinking-Judgement(ESTJ)의 경향이 나타나리라는 가설은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점으로 보아 가설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연구기재는 서양사람들에게는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가 증명되었으나 한국인 특히 한국여성들에게 이 성격검사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Galbraith와 Bernard(1978)가 한미결혼의 Compatability와 Incompatability를 조사하기 위하여 FIRO-B.(W.C. Schutz, 1958)를 사용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 영역, Inclusion Control, Affection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Interchange Compatability, Originator Compatability, Reciproral Compatatility의 세 Type으로

92) Eric Berne,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1964.

93) Thomas Harris, I'm O.K.-You're O.K., New York: Harper & Row, 1967.

94) Isabel Briggs Myers,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62 (Manual)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다. Galbraith와 Bernard는, 그들의 227쌍의 한미결혼조사보고에서 상호부적응을(Incompatibility)을 Interchange-Affection (78.0%) Interchange-Control (48.9%), Interchange Affection(86.8%)을 미군들이 나타냈고 같은 순서의 분야에서 한국부인들은 81.8%, 59.9%, 92.1%를 나타내어 한미결혼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⁵⁾ 그러므로 80%—90%의 이혼율을 주창하는 이론들의 근거를 뒷바침 해 주고 있다. FIRO-B 조사는 한미국제결혼을 원하는 모든 미군과 한국여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FIRO-B의 질문지가 한국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 Validity와 Reliability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상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을 고찰하고 가족관계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가족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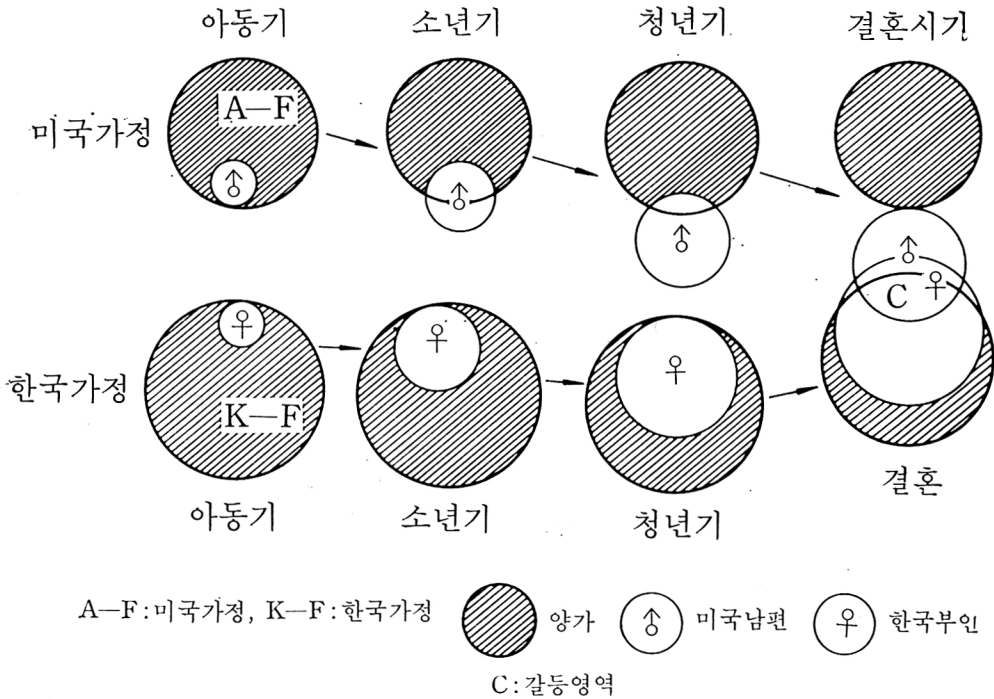
본 연구자가 관찰한 임상결과에 따르면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미군과 한국여성의 가정의 문화적 태도가 가장 큰 문화적 갈등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 (Jung:최 재석; 1965, 27—46) 동양인의 의식구조 내지 Identity는 개인적인 Identity라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적 내지 가족적 Identity라고 볼 수 있다. (Abel and Metraux; 1974, 33—71, 180—209)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결혼은 가족속에 속한 두 개인이 가족들의 명목에 따라서 결합하여 어느 정도 종속된 가족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사회에서는 가족에서 독립한 개인들이 사회의 명목에 의하여 결혼하여 독립된 가족단위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가족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미국제결혼은 이와같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문화체계가 인위적으로 결합된다는 차원에서 갈등을 면치 못한다. 이 개념을 도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해 4>

이 도해에서 보면 미국남자는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 Identity가 점차 가정(A-F)에서 독립해 나가는 반면, 한국여성들은 성장을 해도 계속 가족(K-F)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결혼을 할 때에는 미군은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써 가족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고 다른 독립된 이성의 Identity와 융합을 함으로써 인생의 친밀성(Intimacy)을 경험하면서 자아확립을 이루게 된다(Erik Erikson, 1950)⁹⁶⁾ 그러나 한미국제결혼에서의 상대방 여성은 독립된 Identity가 아닌 가정과의 Collective Identity를 소유하고 있어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써 한국부인들은 남편 말보다 자기 모친 말을 더 듣고, 결혼 사생활에

95) Galbraith and Bernard op. cit., p. 40.

96) Erik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Y.: W.W. Norton & Company, Inc, 1963 (1950).



<도해 4>

한국부인들의 가족을 참여 시킬려고 하며, 자기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제원조를 할려고 남편까지 속일 때가 있다고 미국 남편들은, 불평을 토로한다.

효(孝, Filial Piety)의 사상에 입각해 부모님과 자기 가족성원들과의 대인관계는 질적인 면에서 남편과의 인간관계보다 강할 때가 있어 미군남편으로 하여금 질투심과 적개심을 일으킬 때가 많이 관찰된다.

또한 한국여성들이 미국남편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고부간의 갈등을 의식하고 두려워 하면서도 시부모, 시가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남편들은 그와같은 동양적 가족관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미군남편은 한국부인들이 가족에게서 독립하여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된 가정을 이룰 것을 주창하고 있지만 한국여성들에게 성격구조상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전문치료자들이 이와같은 문화적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응을 하도록 협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한국여성들은 가출하여 부모 몰래 좋지 않은 직업 내지 미군과 동거생활을 하므로 체면을 잃고 부모에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나간다. 가족에게서 떠난 독립된 여성의 의식구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정과의 재결합을 위해 재정적인 보상, 정식 결혼, 자녀출산(최 재석,

1965, 윤 태립, 1977, 1970) 등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방법으로 죄책감을 해결하고 체면을 내세운다. 대개의 경우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생활을 부대에서 살고 제한된 근무연한내에 제한된 시간에 잠정적으로 한국풍습에 순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제인 것 같지는 않게 보인다. Galbraith *et. al.*의 조사에도 한미결혼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문화, 언어, 금전, 차별, 부인교육 정도, 부인가족, 성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⁹⁷⁾ 그러나 한국부인들이 부모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한 후에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불효의 죄책감은 정신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정신 역동성을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단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 한국부인들의 정신적 지지체계 (Emotional Supportive System)는 뿌리를 뽑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끈다. 그것은 한국여성들의 사회생활은 가족생활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므로(최재석, 1965)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스스로 해결하거나 지역사회 의 정신적자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대신,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고, 미국내의 결혼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위축(Withdrawal)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의 치료 내지에 방은 사전에 한국여성들의 자아정체감형성이 가족과 얼마나 밀착되었는가를 알고, 미국남편은 그 여성과 그 여성이 지니고 있는 가족의식만큼 가족과도 결혼한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재정관리와 문화적 갈등

한미국제결혼에서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문화적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미군과 한국여성들에게 돈이 주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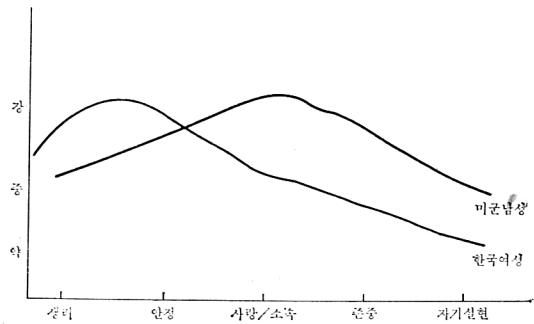
첫째, 부유한 사회적 배경에서 일정한 봉급과 생활보장을 받는 군인들은 금전의 결여가 그들의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난한 한국여성처럼 느끼지 못한다. 한국여성들이 기지존을 찾아온 제일 큰 이유중의 하나가 돈벌이다. 돈은 곧 한국여성들의 Identity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매음, 동거, 클럽의 종업원……등, 모든 기지존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금전적 수입이라는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군과 한국여성들의 만남이 돈을 주고 받는 남녀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여성들은 돈을 받는 편이고 미국남성들은 주고 쾌락을 사는 편이었다. 한국여성들에게 안전이란 곧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미군보다도 더 강렬한 태도로 돈을 대하게 된다.

둘째, Maslaw의 Hierarchy of Needs⁹⁸⁾ 학설에 의하면 한미결혼에서 한국여성들의 욕구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나타나는 반면 미국남성들은 사랑, 존경, 자아실현 측면에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임상에서 볼수 있다. <도해 5>

97) Galbraith and Bernard, *op. cit.*, p. 29.

98) Lindsey and Hall. *op. cit.*, pp. 267-275.

〈도해 5〉에서 나타내듯이 일반적인 한국여성과 미군남성들의 남녀관계는 한국 여성의 돈에 대한 동기와 미군들의 사랑/소속감에 대한 문화적 갈등으로 나타난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갈등은 〈도해 6〉와 같이 미군남편의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의 갈등이다. 한국부인은 현재는 최대로 돈을 아끼고 미래를 위해 가능한 한 저축을 할것을 주장하며 남편의 용돈까지도 극히 제한한다. 미군남편들은 이와같은 생활 태도에 대하여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생활 스타일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한 한국여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가난과 이로 인한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여성들은 미국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경제생활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관리에 대한 한 신경 증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도해 5〉 한국여성/미군의 요구

	한국부인	미군남편
현재	+	++++
미래	+++++	++

〈도해 6〉 돈의 사용도에 대한 견해

세째, 금전관리의 문화적 갈등에서 미군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는 한국부인의 부모 가족을 금전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는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도와 주고 그 후에는 상호 완전히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서 한국부인들은 항상 자기가족의 경제생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적어도 미군들은 이미 한국여성들의 완전한 Identity 와 의식구조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떠나서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이와같은 의식구조하에서 자기의 금전을 부모와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못된다고 한국부인들은 생각한다. 더우기 부모를 배반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신의 매춘행동에 대한 속죄의 방법중의 하나가 경제적 화복제 (Peace Offering)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일과 집(가문)의 재산을 늘리는 일은 모든 자식들의 최대의 의무이며, 부부간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히 생각하는 유교의 전통하에서 한국부인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함을 미군들이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최 재석 1965). 실제적으로 가난한 한국가정의 생활은 상호협동과 보조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생활이 형성되고 있다. 곧 노부부를 젊은 자식들이 도와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과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지닌 미국가정들의 입장에서 부모

가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의 문화적 마찰은 현실적인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은 남편의 저축을 한국은행에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미군으로써는 불안한 한국은행에 저축을 하자는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미군들은 결혼을 빙자하여 동거하다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여성은 자기도 이와같은 피해를 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므로 한국부인과 가족들은 결혼보증의 담보로 남편의 돈을 미국에 갈때까지 은행에 예치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한국여성은 금전에 대한 자기소유의식, 가정생활에 결정권을 더 확고히 보장받는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언어소통의 장애와 문화적 갈등

Galbraith *et. al.*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국제결혼의 큰 장애원인으로 미군의 26.9%가 문화, 24.7%가 언어소통으로 보고한 반면, 한국여성들은 언어소통의 장벽이 44.8%, 문화적 차이가 30.5%로 나타나 한국여성들의 언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⁹⁹⁾

Yokota 공군기지의 James Kiffer 박사(공군소령)¹⁰⁰⁾ 등 많은 사람들은 언어소통이야 말로 한 미결혼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는 오랜 임상결과 그렇게 지나친 긍정적 기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으로 많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문화적 실마리(Cultural Clue)가 없이는 보내는 Message를 터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유교적 전통하의 한국부인의 의사소통은 체면을 의식하며 간접적 표현형식을 취함으로 문화적 공감이 없는 미군들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Awareness Level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어는 논리적 정확성이 결여되고 형용사적 표현이 다양하여 신분적 언어의 제도가 있어¹⁰¹⁾ 이와같은 언어구조를 지닌 한국여성이 영어를 구사할 때도 미군들이 이해하는데 난점이 많을 것으로 간주된다. 개념적 차원(Conceptual Level)에서의 문화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안전(Safety)과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때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보자. 한국부인이 기지촌에서 밤에 잠깐 친구를 방문하러 나갈 때 미국 남편은 제일 먼저 부인의 안전을 생각한다. 무서운 밤거리, 포장이 되지 않은 토랑, 밤거리의 싸움 등 위험하다고 부인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미군은 미국도시의 밤거리, 미국거리의 싸움, 토랑에 빠져서 골절등 상해나 상처를 받을까 안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표한다. 미국문화의 배경을 모르는 한국여성들은 한국 밤거리의 안전도, 지금까지 성장해 올 때 경험한 주위환경(토랑)의 정상성

99) Galbraith and Barnard, *op. cit.*, p. 29.

100) The Asian Wife: Coping in Strange, New World by Dennis Steele in Pacific Stars and Stripes, Sunday, June 20,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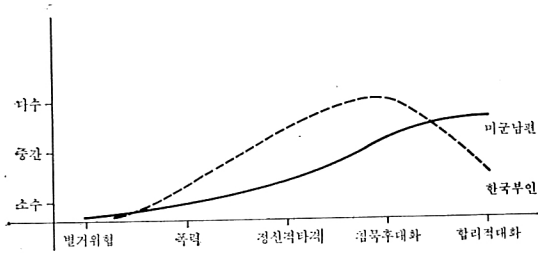
101) 윤태림, *op. cit.*, pp. 94-103.

구경거리로써의 위협하지 않은 이웃싸움등 한국적 상황하에서 “안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결과적으로 남편의 말을 안전이외의 개념 곧 질투, 소아적 성격등으로 해석하여 가정싸움이 일어난다. 시간이라는 차원에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미군에게는 10分~20分정도로 이해되나 한국부인들에게는 1시간~2시간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밤에 집에서 기다리는 미국남편은 근심하게 되고 분개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해석을 내려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한국부인의 해석은 “거짓말장이”라는 공박에 분개하고, 질투나 성격의 결함등 남편을 곡해하게 된다. 이것은 옷을 입을때 “적절한 옷차림” “장소”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념적 이해의 차이로 행동의 명목단위에 차이가 생기는등 의사거래갈등의 구조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언어교환의 한계점 문제는 상호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내면적으로 수용하느냐의 문제다. 대개의 경우 지난 7년 동안의 임상적 고찰의 결과로 본다면 의사교환은 60%~80%의 정도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히 남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위치에서 의사교환은 40%미만 정도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피상담자들로 부터 보고 받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미군과 한국부인의 내적처리는 의심(Doubt), 불안(Anxiety), 좌절(Frustration), 분노(Anger) 등 심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오해(Misunderstanding), 곡해(Distortion), 위축(Withdrawal), 대화의 제목변경 등 여러가지 병리적 비기능적 현상을 유발시킴을 관찰할 수 있고, 자기 문화권으로 후퇴하는 퇴화적 행동(Regressive Behavior)을 보인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보다는 모국어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또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대화를 되풀이함으로써 불안한 의사불통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로써 부부간의 새롭고 창의적이며 즐거운 대화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상호 가정 싸움을 할 때의 언어의 장애는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와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축적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고 본다.

5. 상호갈등 해소와 문화적 양상

결혼에서의 상호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특별히 한미국제결혼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의 부부갈등해소는 갈등의 형태가 어느 정도 문화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예측이 가능해 상호갈등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여성과 미국남성간의 부부갈등은 전혀 상이한 문화권의 충돌이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갈등해결의 과제가 매우 어렵게 된다. (Eric Berne, 1964, Thomas A. Harris, 1968), 일반적으로 부부갈등의 해결방법으로 미군남편은 논리적 접근으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합리적인 형태를 취하는 반면 한국부인은 감정적 내지 도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기지촌(광주, 군산, 서울, 의정부, 대구 등)에 거주하는 국제결혼부부의 가정싸움의 형태는 다음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싸움을 한 후 남자나 여자가 짐을 싸들고 부대로 돌아가거나 다른 숙소로 옮김으



〈도해 7〉 한국 여성과 미군 남성의 가정싸움 형태가 추파를 던지고, 여자의 경우 막걸리를 마시며 다른 클럽종업원과 화투를 치는 등 파괴적 행동으로 갈등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다. 네째, 싸움을 한 후 얼마간(20분~2시간 정도)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킨 후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는 것이다. 다섯째, 싸움을 한 후 가능한한 속히(10분 내정도) 대화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것이다.

미군이나 한국여성은 다같이 다섯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은〈도해 7〉에서 보듯이 한국여성들이 (2) (3) (4)의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미군남편들은 (3) (4) (5)의 경향을 보여 문화적 배경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하는 한국문화와 독특한 성격을 지닌 한국부인의 갈등해결 형태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미군남편의 독특한 성격에 입각한 갈등해결형태를 상호 분명히 이해시키는 일은 가정불화의 해결은 물론, 예방도 도모하는 효율적인 치료모델이 될 수 있다. (Ackerman)

사회심리적 차원 (Psychosocial Dimension)에서의 갈등해결의 동기와 방향을 분석하면 미군이 80%나 한국여성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당면한 문제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도피경향은 특히 한국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듯 하다. 즉 가정, 고향에서의 도피……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빈곤에서……여성으로써는 숨막히는 한국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한미결혼의 이유로 부각됨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의 한미국제결혼은 한국여성들이 지닌 도피적 요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된다. 도피욕구에 사로잡힌 한국여성들은 미국내에서의 냉혹한 현실을 생각지 않고 현실도피에 급급함으로써, 어려운 미국생활에 부닥치게 되면 다시 도피를 하게된다. 결국 한미국제결혼의 8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곧 이와같은 갈등에서의 도피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로써 영원한 이별의 사회적 신호(Social Signal)로 위협을 가하는 형태이다. 둘째, 갈등의 해결을 완력을 사용하여 서로 구타하거나 가구를 파괴하는 등 난폭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다. 셋째, 싸움을 한 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 즉 남자의 경우 클럽에 나가 다른 여자와 멘스를 하든

다른 클럽종업원과 화투를 치는 등 파괴적

행동으로 갈등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다. 네째, 싸움을 한 후 얼마간(20분~2시간 정도)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킨 후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는 것이다. 다섯째, 싸움을 한 후 가능한한 속히(10분 내정도) 대화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것이다.

IV. 한미국제결혼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위한 가설 설정

본 논문의 목적중의 하나는 한미국제결혼에서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의사전달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임상적 영역을 조사연구한 후, 이 문화적 갈등 영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같은 기초분석재료는 한미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치료자(정신분석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가족상담자, 사회사업가, 군목)가 치료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고찰된 문화와 인간행동이론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험연구를 위하여 다음 몇가지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종결지으려고 한다.

1. 미군들의 Ego 기능이 Id와 Superego를 통합한 기능을 하는 대신 한국여성들의 Ego 기능은 권위의 통제하에서는 Superego의 영향을 받고, 권위의 통제가 사라지면 강력한 Id의 영향을 받는다.
2. Transactional Analysis에서 한국부인들은 외부에서는 "I'm not O.K., You're O.K."로 나타나나 내부로는 "I'm O.K., You're not O.K."의 반대형상을 일으킨다.
3. 미군남자들은 결혼과 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Identity를 형성하나 한국여자들의 Identity는 가정이라는 Collective Identity의 일부로 형성된다.
4. Maslow의 Hierarchy of Needs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남편들은 Love/Belonging Need가 가장 강한 대신 한국부인들은 Security Need를 강하게 나타내어 금전사용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5. 미국남편과 한국부인들간의 언어소통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때 오해, 곡해, 위축현상이 나타난다.
6. 상이한 문화적 배경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의미의 차를 나타냄으로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한다.
7. 부부갈등 해소방법에서 미군남편들은 합리적 접근을 하는 반면 한국부인들은 감성적, 명목적 접근방법을 택한다.
8. 국제결혼에서 한국부인들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현실의 역경에서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미국제결혼에서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9. 미국남편의 재정을 한국에 주둔하는 동안 한국은행에 저금하는 일은 한국 부인에게 결혼에 대한 보증을 더욱 확고하게 해 준다.

參 考 文 獻

1. 金在恩, 韓國家族의 心理,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4.
2.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值觀, 一潮閣, 1967.
3.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0(1980)
4. 윤태림, 한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77.
5. 宋聖子, 國際結婚에 있어서의 夫婦葛藤,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4.
6.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開文社, 1965(1976, 1977).
7. Abel, Theodora M. & Métraux, Rhoda, *Culture and Psychotherapy*, New Heaven, Corn.: United Printing Services, Inc., 1974.
8. Allport, Gordon W., *Personality & Social Encounter*, Boston: Beacon Press, 1964.
9. Beck, Dorothy Fahs, *Marriage and The Family under challenge-an outline of issues, trends, and alternatives*, N.Y.;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76.
10. Benedict, Ruth, *Patterns of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Co.
11. Berne, Eric, *Games People Play*, N.Y.; Grove Press, 1964.
12. Brandt, Vincent S.R.,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71.
13. Buhler, Charlotte, *Value in Psychotherapy*, N.Y.; Free Press of Glencoe, 1962.
14. Candill, William, *Observation on the Cultural Context of Japanese Psychiatry, in Culture and Mental Health*, ed. M.K. Opler, 1959.
15. Choi, J.S., *Traditonal Values in Korean Family*, Jounal of Asiatic Studies, 7, No. 2, 1965.
16. Brown, Roger, *The anuthoritarian Personality and the Organization of attitud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17. Doi, L. Takeo, *Some thoughts on Helplessness and the Desire to be Loved*, *Psychiatry*, Vol. 26, 1963.
18.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1, No. 17,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nc., 1971.
19. Erikson, Erik, *Childhood and Society*, N.Y.: W.W. Norton & Company, Inc., 1963(1950).
20. Feldman, Frances Lomans & Schery, Frances H., *Family Social Welfare-Helping Troubled Families*, New York: Atherton Press, 1968.
21. Frank, J.D., *Persuasion and Healing;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herapy*,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1961.
22. Frank, L.K., *Tactile Communicatio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Vol. 56.
23. Galbraith, H.L. & Bernard, R.S., *Korean American Marriage Applicants; A social-Cultural, Inter-personnal Survey*, Korean Nationals and American Service Personnel-1978, 1978.
24. Garland, Diana Richmond. *Condes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Skills*, N.Y.: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78.
25. Gateley, Harald G., *Staff Study of Korean American Families*, Fort Sill, Oklahoma, 1977.
26. Gateley, Harold G, *Staff Study of Korean American Families*, 7 June, 1977, Submitted to Dept. of the Army Hq.U.S. Armys Field Artillery Center and Fort
27. Glick, Paul C. and Norton, Arthur V., *Perspective on the Recent Upturn in Divorce and Rema-*

- rriage, *Demography* 10(August 1973).
28. Grunlan, Stephen A. & Mayers, Marvin K., *Cultural Anthropology-A Christian Perspective*,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29.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N.Y.: John Wiley & Sons, 1978(1957)
 30. Hall, Edward T. *A System of Notation of Proxemic Behavior*, *American Anthropologist*, Vol. 55, 1963.
 31. Hall, E.T. & Whyte W.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guide to men of Action, in Communication and Culture*, ed. A.G Smith, N.Y.: Halt Rinehart and Winston.
Harris, Thomas, Im O. K.-You're O.K., N.Y.; Hagar & Row, 1967.
 32. Hartmann, Heinz, *Ego Psychology and the Ploblem of Adaptation*, Trans. David Rapapor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8.
 33. Henry, Jules, *Culture against man*, N.Y.: Random House, 1963.
 34. Henry, Jures, *Cultural Objectification of case Histo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19.
 35. Hjelle, L.A. and Ziegler, D.J., *Personality*, N.Y.: McGraw-Hill, 1976.
 36. Jacobi, 李泰東譯, “칼 융의 心理學, 成文閣, Jolande, 1978.
 37. Jacobson Neil S. & Margolin, Gayla, *Marital Therapy-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 N.Y.: Brunner/Mazel, INC., 1979.
 38. Jacobson, Paul H., *American Marriage and Divorce*, N.Y.: Rinehart & Co. 1959.
 39. Jung, C.G., *Modern man in Search of a Seoul*, W.C. Dell & C.F. Bayness (Trsrator), London: Kegan Paul, 1938.
 40. Jung, C.G., *The Undiscovered Self, Mentor boo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58 (1957).
 41. Kaufman, I. Charle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Animal Behavior Studies for the Psycho-Analytic Concepts of Instinct, Energy, and Drive*, *International Journal*
 42. Kardiner, A. and associates,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5, pp. 47—100.
 43. Kiefer, Christie W., *Changing Culture, Changing Lives*, California: Jossey -Bass Publishers, 1974.
 44. Kim, Bok-Lim C.,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in *Social Casework*, Vol. 53, No. 5, May, 1972.
 45. Kim, Stephen K., *Strategies for Ministry to Asian Wives of United States Servicemen*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Francisco, Calif, June, 1978.
 46. Kroeber, A.L., *Anthropology; Culture Patterns and Processes*, Harcourt Brace & Would, Inc., 1948(1923).
 47. Lee, D., *Are Basic Needs Ultimate?*, in Kluck hohn (Ed.),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Y.: Alfred Knopf, 1955.
 48. Lee, Daniel B., *Military Transcultural Marriage: Reserch Findings*, the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El Paso, Texas, 1981.
 49. Levine, Robert A.,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50. Linfon, Ralph,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N.Y.: Appleton-Century-Crofts, Inc., 1945.
51. Mace, David and Mace, Vera, *Marriage-East and "Them*, London: MacGibbon, 1960. Stein, Joan W., *The Family as a Unit of study and Treatment*, Reg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1973.
52. Mead M., *New lives for Old*, N.Y.: Dell Publishing Company, 1956.
53. Mead, Margaret, *Culture and Commitment-A study of the Generation Gap*, Natural History Press/Doubleday & Company, Inc., 1970.
54. Minanri, Hiroshi, Albert R. Ikoma (Trans.), *Psychology of the Japanese People*,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1.
Minuchin, Salvador, *Families & Family Therapy*,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56. Moloney, J.C.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Japanese Psycho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53. Vol. 34
57. Moon, David, *Study of Problems of Korean Wives*, 1976.
58. Nida, Eugene A., *Customs & Cultures*, N.Y.: Harpor & Brothers, 1954.
59. Parsons, Talcott & Shils, A.,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60. Park, Jong Sam,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s Systems and Psychocr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jeles*, University of Sonthern California(Doctoral dissertation), 1975.
61. Raush, Harold L. et.al., *Communication Conflict and Marrage*, Jossey-Bass Publishers, 1974.
62. Ratliff, Bascom Wet al., *Intercultural marriage; the Korean-American experience in Social Casework*. Vol. 59, no. 4, april 1978.
63. Ruch, F., *Psychology and Life*, Scott Foresman & Co., E.M. 1944, p. 423.
64. Satir, Virginia, 金萬斗譯, 家族治療의 理論과 技術, 韓國社會福祉研究所
65. Schutz, W.C., *FIRO: A three 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Y.: Rinehart, 1958.
66. Sealey, L.G.W. & Gibbon, Vivian,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 the Primary Blackwell and Mott, Ctd., 1962.
67. Shaw, Marvin E., *Group Dynamics: The Psychology of Small Group Behavior*, McGrow-Hill, Inc. 1976(1971).
68. *Social Casework*, Vol. 57, No. 3, No. 6, 1976.
69. Thompson, Richard A., *Psychology and Culture*,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75.
70. Tönnies, Ferdinand,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 Translated and Edited by C.P. Loomis as *Community and Society*, N.Y.: Harper & Raw, 1963.
71. Tsurumi, Kazuko, *Social Change and the Individual: Japan befores and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72. Ware, C.F., *Imm'n'grati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1967), Mcmillan & Free Press.
73. Wrong, D.H., *The Oversorialized Conception of men in moder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183-193.